

## 第 27 回 定期總會 開催



■ 정기총회전경

본 협회 제 27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418명중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운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전개에 따른 국내업계의 보호와 대외경

쟁력 확보라는 크나큰 과제뿐 아니라, 조사 검사 대행업무 확대 실시 및 감리업무 강화와 이에 따른 수가의 현실화 문제, 건설 기술관리법 문제, 건축사법 개정 추진 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

고 말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선진화를 이룩하여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상열 차관보가 대독한 장관치사에서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활동범위인 건축기술과 예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건축사 여러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 및 다카도시 이시카와 일본건축사협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92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유인물로 대체하여 승인하고, 추대회원의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들은 후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서 제7호의 안까지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일괄상정하여 부의안건심의회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 안 : 93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 안 : 93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향후 1년간 연구소의 활동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 정기총회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적 구성이나 운영방법을 개편하는 조건부로 원안 승인

• 제4호의 안 : 93년도 전국건축사대회 특별회계 수지예산

### 제 27회 定期總會

## 開 會 辭

尊敬하는 유상열 차관보님과 徐廷華 國會建設委員長님!

그리고 公社多忙 하신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參席해 주신 來賓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각 市道 建築士會에서 새롭게 建築士會 任員과 代議員으로 선출되셔서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會員 여러분께 祝賀와 함께 歡迎의 뜻을 표하며, 協會發展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役割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親愛하는 全國 代議員 여러분!

本人이 2년전 遠大한 抱負와 꿈을 가지고 大韓建築士協會 會長이라는 重責을 맡으면서 急變하는 環境變化의 時代的 흐름에 副應하고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益伸張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成果가 會員 여러분께 만족하리만큼 期待值에 副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때 建築許可 規制 및 住宅建設 割當制로 인한 어려운 建築環境 속에서도 이의 撤回와 緩和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했음은 勿論, 建築法 및 同 施行令 全面改定, 單獨事務所 業務範圍 大폭 上向調整의 實現을 비롯한 年金 制度改善, 報酬料率現實化, 所得標準率引下 등 主要 懸案을 強力하게 推進하여 많은 基盤을 造成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보람과 어려움이 交叉되었던 時間이었습니다.

이 機會를 빌어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堪耐하면서 協會發展을 위해 聲援과 協調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會員들께 뜨거운 同志愛를 느끼며 眞心어린 感謝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代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對內外的으로 거센 挑戰에 直面해 있습니다.

開放化, 國際化時代 展開에 따른 國內業界의 保護와 對外競爭力 確保라는 크나큰 課題뿐 아니라 調査檢査代行業務 擴大實施 및

- (안)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 안 :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 (안)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 안 : 93년도 건축사 연금 특별회계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 안 : 임원개선의 건

-임기를 마치게 되는 오운동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이 집행부를 이끌어갈 19대회장 선거에 들어가 강석준, 김규태, 이영희 회원이 입후보하여 경건발표에 이은 투표에 들어가 이영희 ((주)회림종합건축대표) 회원이 1차투표에서 총투표지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여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이사 및 참여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신임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키로 함에 따라 이영희 신임회장의 추천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성훈섭, 서정민, 박창호, 김기완회원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참여이사에는 안영준, 이경호, 정정치, 김득수, 최관영 회원을 선임한 후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다.



■ 개회사를 하는 吳雲東會長



■ 건축사 현장을 낭독하는 한중언(감사)



■ 신임임원 소개 광경



■ 공로패수여식 광경

監理業務強化와 이에따른 酬價의 現實化問題, 建設技術管理法 問題, 政府로부터 移管될 建築士 試驗 受任 問題, 建築士法 改正 推進 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課題가 散積해 있는 實情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智慧와 結集된 力量이 要求되는 時期라 하겠습니까.

이러한 時代的 요구에 우리는 能動的인 姿勢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思考를 바탕으로 制度改善과 技術先進化를 이룩해 나간다면 이 時期는 분명 跳躍을 위한 다시없는 絶好의 機會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舊態依然한 固定觀念에 이끌려 現實安住에 汲汲한다면 우리는 永遠히 衰退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始作한다는 結緣한 覺悟로 이 어려운 時期를 극복함은 勿論, 未來指向的이고 健全한 建築士界 風土造成에 우리 모두의 슬기와 底力을 모아 우리의 힘을 다시한번 힘차게 분출합시다.

尊敬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總會는 우리 자신의 일을 協議하는 자리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建築文化 發展의 方向을 摸索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銘心하시고 眞摯한 論議와 發展的인 意見開陳으로 有益한 成果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始終 會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愛情어린 聲援을 時期해 마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來賓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를 드리며,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家庭에 행운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갈음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 19대 회장에 李永熙 회원 就任



■ 신·구회장 이·취임식 광경

본 협회 19대 회장에 李永熙 회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취임했다. 12월 14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거행된 신·구 회장 이·취임식에서 임기를 마치는 吳雲東 전임 회장은 「격변기에 회원 여러분

의 이해와 협조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집행부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는 이임인사가 있었다.

이어 있는 취임인사에서 李회

장은 「새 시대 새 협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능동적인 자기 개혁으로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자」 전제하고, 「우리의 앞길에 산재한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관행의 개선은 물론, 협회발전을 가로막고 회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이나 부정도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성실하고 건전한

회원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건축인으로서의 긍지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선진화된 건축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선거시 공약한 하나하나의 사안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신임 李회장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학력 및 약력

- 1938년 경북 경산생
- 1957년 경북 고등학교 졸업
- 196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1970년 희림건축설계사무소 개설 ~ 현재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1983년 대한건축사협회이사
- 1986년 한국건축가협회이사
- 1987년 서울시 건축사회 부회장
- 1988년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
- 1990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제 27회 定期總會

## 致 辭

오늘 大韓建築士協會의 제27회 定期總會에서, 吳雲東 會長님을 비롯한 전국의 建築士代議員 여러분과, 國會 建設委員會 徐廷華委員長님, 宋鍾奭 大韓建築學會 會長·張錫雄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그리고 日本 建築士聯合會 다카도시 이시카와 (石川勝敏) 副會長 등 內外貴賓을 모신 가운데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創立된지 4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3千9百餘 會員을 包容하고, 그동안 어려운 業務 環境속에서도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暢達에 中樞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衷心으로 임직원의 勞苦를 致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은 國民 모두의 生活과 生産活動의 터전일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文化的 尺度로서 後孫에게 물려줄 文化財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遂行하고 있는 建築設計와 監理業務 등 建築活動은 國民生活에 필요한 活動의 터전을 創造하고, 한편으로는 國民의 日常生活과 關聯되는 各種 法規와 制度의 運用과도 連結되며 또 한편으로는 그 時代와 그 나라의 文化水準을 기증하는 建築文化 創造에 참여하는 藝術의 活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建築士 여러분의 活動範圍인 建築技術과 藝術의인 部門에 대하여는 建築士 여러분의 創意性이 최대한 發揮될 수 있도록 그 環境을 造成하고 自律性을 尊重하는 施策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政府는 그 동안, 國民과 建築士 여러분의 便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建築關聯法令 등 關聯制度를 不斷히 改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建築法令을 全國적으로 改編하였고, 앞으로 建築士法令도 現實에 맞게 整備作業을 推進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全國에서 모이신 建築士 代議員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땅에 建築文化를 暢達하기 위해 평소에 本人이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政治·經濟·社會 등 각 分野에서 先進化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大變革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國民 모두의 成熟된 意識과 團合된 努力이 要求되는 時期입니다. 建築分野도 建築士協會를 中心으로 이와 같은 變化에 副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一部에서는 違法建築이 根絶되지 않고 行政秩序를 紊亂케하는 일이 종종 發生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新任任員

監事



**金椿培**  
30년 11월 5일생  
66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9년 서울건축사 신용조합 이사장 역임  
신용협동조합 서울 연합회 감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성미·무림 대표



**朴昌浩**  
37년 11월 25일생  
62년 홍익대 건축과 졸업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5  
대표

理事



**徐廷珉**  
37년 2월 14일생  
63년 전남대 건축과 졸업  
90.10~92.10 광주건축사회 회장 역임  
건축사사무소 동양 대표



**成勳燮**  
38년 4월 18일생  
63년 부산대 건축과 졸업  
90.11~92.10 부산건축사회 회장 역임  
(주)태평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여러분은 國家로부터 建築物의 設計·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受任받고 계시는 公人의 立場에서 建築行政 遂行의 同伴者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와 같은 建築不條理와 不法建築物의 根絶에 앞장섬으로써 建築行政秩序를 바로 잡는데 서로 힘을 모아 先導的인 役割을 다하여 주실 것을 當否드립니다.

둘째, 昨今의 世界 政治·經濟는 그 變化와 發展의 速度를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經濟統合과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 의한 世界經濟構造의 變革은 우리에게 많은 挑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市場開放에 따른 建築設計分野의 自生力 確保와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한 技術開發은 急先務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政府次元에서도 國內業界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 多元의인 努力을 講究하고 있습니다만, 政府의 役割만으로는 이에 效率的으로 對處하는데 限界가 있으므로, 協會를 求心點으로한 建築士 여러분의 不斷한 努力이 優先되어야 하겠습니까.

셋째, 建築士여러분의 高度의 專門教育을 履修하고 長期間 實務經歷을 쌓아 國家가 認定하는 榮譽스런 資格을 取得한 분들 이므로, 國民이나 政府는 여러분에 대하여 期待가 큰것도 事實입니다.

또한, 앞으로 建築物은 國民의 높은 所得向上과 더불어 生活에 더욱 便利하고 快適하며 審美的 眼目에서의 美觀을 중요시하는 趣向으로 轉換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와같은 國民의 期待와 時代의 흐름에 副應하여, 여러분께서는 謙虛한 省察과 自己發展을 통하여 高度의 專門職業人으로서의 品位와 位相을 높이고 이나라 建築文化 發展을 主導하는 새로운 建築士像의 定立에 倍前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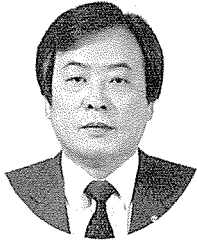
끝으로, 大韓建築士協會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 選出되는 會長을 비롯한 任員陣을 求心點으로 새時代에 副應하는 建築專門職能團體로서 莫重한 使命感을 가지고 우리나라 建築文化 發展에 先導的 役割을 다하여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임기간동안 政府施策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고 많은 業績을 쌓으신 吳雲東 會長님의 獻身的인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大韓建築士協會의 無窮한 發展과 建築士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면서 致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11. 27

建設部長官 徐 榮 澤



**金基完**  
41년 12월 12일생  
6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4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졸업  
김기완 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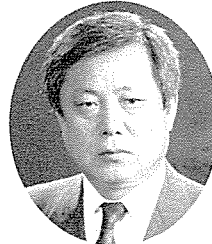


**李京鎬**  
38년 3월 15일생  
68년 한양대 건축과 졸업  
본 협회 복지위원회 위원  
서울건축사회 성동분회 회장  
(주)제일건축사사무소 대표

參與理事



**安永濬 (유임)**  
37년 7월 5일생  
62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본 협회 전산위원회 위원장  
삼예건축사사무소 대표



**金得洙**  
41년 2월 11일생  
65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제 27회 定期總會

祝 辭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제27회 定期總會에 본인이 이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韓國建築家協會 천여 회원의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건축계는 제도적 모순과 개방의 압력등으로 말할 수 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본회 吳雲東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高度 産業 社會를 거쳐 尖端 情報化 社會로 진입하는 國際化時代에도 우리 建築人들이 추구하는 참다운 건축과 아름다운 환경의 의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文化的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建築人의 本分이라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각오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우리 建築界 3단체가 相互 協力과 補完關係로 더욱 힘을 모아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겠고 이에 建築人이 사회에 보답하고 책임을 지는 풍토를 가지므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建築은 그 時代의 遺物”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인사말을 이만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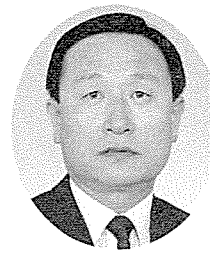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7일

한 국 건 축 가 협 회  
會長 張 錫 雄



**崔寬泳**  
41년 12월 29일생  
62년 서울대 건축과 졸업  
7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본 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鄭正治**  
43년 6월 3일생  
68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본 협회 홍보·편찬위원회 부위원장  
건축사사무소 합정대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광경

본 협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초동소재 진로유통 13층 서경에서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을 초청,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 협회 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 및 서울건축사회 회장과 임원, 서울지역 분회 회장, 경기, 인천 건축사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서울 건축사 복지회 임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해제, 주택물량 할당제에 따른 해제 등 현안 건축관련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는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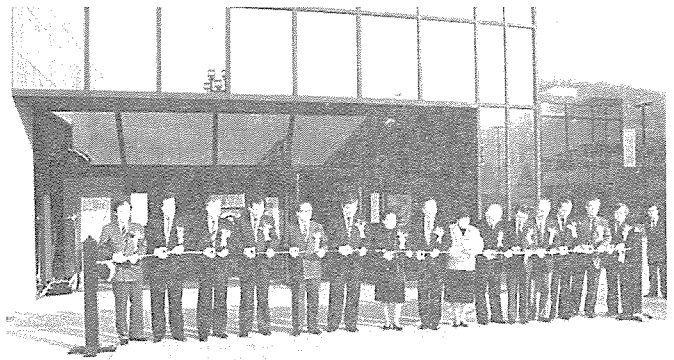
**제27회 정기총회 후원업체**

지난 달 27일에 있었던 본 협회 제 27회 정기총회에 기념품(계산기)을 협찬하여 주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주)

금강, (주)벽산, (주)이건창호시스템, 주택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建築界 消息**

**제1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개최**



■ 개막식 테이프 절단식 광경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석웅)가 주최하고 본협회와 대한건축학회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후원한 제11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이 12월 4일 (금)부터 20일 (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전은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의 특별기획 전시회와 건축비디오쇼,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 전시 등 '92건축가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협회상 및 일반 공모부문 수상작이 전시되었다.

◆ '92건축가 협회상

- (고)김수근 / 벽산 125빌딩
- 김 원 / 통일연수원
- 김종성 / 경주힐튼호텔 및 선

재미술관

- 승효상 / 성북동 주택
- 오기수 /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 윤승중 + 변 용 + 민현식 / 일신 방직사옥
- 이종호 + 양남철 / 울전교회

◆ 일반공모부

- 대상
- '반도시'라는 도시 / 김혜경
- 우수상
-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중간영역 / 안경두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그룹, 자유, 그리고... / 윤영열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뜸 (청주시 중앙로 거리계획) / 손영호

**4·3그룹 건축 전시회 개최**

4·3그룹에서는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12월 12일 (토)부터 24일 (목)까지 동송동 인공갤러리 전시장에서 심포지움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했다.

참가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광재환 - 歸脫, 김병윤 - 건축적 탐구, 김인철 - 超空間의 의미,

도각 - 파동의 각, 동정근 - 상정 체계를 찾아서, 민현식 - 비움, 방철린 - 同宇異意, 백문기 - 미로, 승효상 - 貧者의 건축, 우경국 - 關係項, 이일훈 - 聖, 俗, 道, 이성관 - 지상43미터의 家像, 이종상 - 말죽거리, 조성룡 - 도시의 풍경